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 따르는 성도



이웃을 섬기며 주를 전하는 아름다운 구제전도팀
(6월 제직회 중에 왼쪽부터 원종욱, 정민재, 손이숙, 옥진복, 김영혜)

주일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열왕기하 4:1 - 7	김예주/다함께 기립
설 교	빈 그릇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찬송과 기도	내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조 모 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김예주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왕기하 4:1-7 (우리말성경)

열왕기하 4장
1. 예언자의 제자들의 아내들 가운데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선생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2.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아라.”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여종이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3.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네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 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4. 너는 네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 빌려 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5.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6. 모든 그릇이 다 차자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7.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네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설교 아웃라인 〈빈 그릇〉

열왕기하 4:1 - 7 ·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1주 · 공급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은 빈 그릇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빈 그릇을 드리는 자리에서 일하신다.

도입 — 두 손을 어깨 높이 들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_____) 모양

전개 — 과부의 세 겹의 없음: 과거(유산) · 현재(소득) · 미래(노후)
그런데 기적은 채워진 그릇이 아니라 (_____) 그릇을 통해 일어납니다.

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물으신다 (2절)
🔵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 여인의 믿음: 그 조그만 것이라도 "(_____)" 하고 인정한 것
-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_____)이었습니다
- 내 능력의 한계는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출발점

② 빈 그릇을 빌리는 수고 (3 - 4절)
🔵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 하나님은 준비하는 (_____)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 그릇조차 이웃에게 빌린 것 — 내 자격이 아니라 빌려서 드리는 순종

③ 그릇이 다하자 멈춘 기름 (5 - 6절)
- 기름이 멈춘 이유: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_____)이 다 떨어졌기 때문
- 빈 그릇을 내미는 것은 더 채우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더 (_____)겠다는 의존

④ 빚을 넘어 살아갈 길까지 (7절)
🔵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 하나님의 공급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까지

그리스도 —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_____)이었습니다
🔵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빌 2장)
- 십자가에서 다 비워지시고, 부활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신다

"빈 그릇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밀지 않는 손이 부끄러운 것이다."

소그룹 나눔(예배 후 함께)

아래 질문을 순서대로 나누어 보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며, 답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1. [관찰] 오늘 설교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장면이나 한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것이 남았을까요?

2. [마음] 과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것 — 작은 시간, 작은 능력, 작은 기회 — 은 무엇인가요?

3. [결단] 이번 주, 그 "한 병"을 주님께 내미는 작은 순종 하나를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예: 하루 10분의 기도, 한 사람 섬기기, 염려 하나를 기도로 맡기기) 다음 모임에서 어땠는지 서로 물어봐 주세요.

오늘의 섬김과 봉사

예배 안내

- 이번 주일: 윤재연, 이수민
- 다음 주일: 옥진복, 손이숙

성경봉독

- 이번 주일: 김예주
- 다음 주일: 안나현

청소정리

- 이번 주일: 조이 조
  (우문주 강자은 김순영 김혜영 이은주 배지은 장수정)
- 다음 주일: 동행 조
  (최은총 김예주 김하람 박윤준 신정혜 안나현 이세린)

후원 선교사님 근황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웹판에는 근황을 싣지 않습니다.

김남진/김성은 (영국기도선교)

- 12차 기도선교가 7/6-7/17 잉글랜드 지역에서 10개 기도팀이 참여하여 진행

임일혁/송경남 (몬트리올 이주자 사역)

- 9/23부터 한국 방문 예정

교회 소식

주일 안내

-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모임이 예배후에 있습니다.
- 오늘 점심 메뉴는 정성껏 키운 유기농 야채를 사용한 제육볶음과 양배추쌈, 가지고추입니다.

7월의 말씀

- 7월 예배 주제는 "뜨거운 여름, 상쾌한 복음!"입니다.
- 7월 주일예배 주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 7월 금요기도회 주제는 〈〈더위를 식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뉴시티 이모저모

- 이번 주일부터 찬양 악보는 소량 배치합니다. 화면 가사를 보며 가슴을 열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7-8월 일정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7/5 주일 10시
- 재정팀 정기모임: 7/5 주일 2:30
- 담임목사님 외부 수련회 인도: 7/11-12 다니엘새시대교회, 횡성
- 찬양팀 음향 조율: 7/19 주일 2:30
- 소그룹 조장 모임: 7/25 토요일 12시
- 초등부 여름 나들이: 7/28 화요일
- 유치부 물놀이: 8/1 토요일
- 청소년부 수련회: 8/3~4 (월요일~화요일)
- 제직회 정기 모임: 8/30 주일 1:15

주일학교 안내

유치부

- 8월 1일(토) 여름 물놀이를 다녀옵니다.
- 최은총 전도사, 유은희 집사,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 유치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유치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15-12:00
- 오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울

초등부

- 7월 28일(화) 여름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초등부 여름 나들이는 오종향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 초등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점심식사 후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 8월 3일(월)~4일(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4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합니다.
- 청소년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주일 오후 1:00-2:10

7월 학부모 기도회 안내

- 이번 주일(7/5) 오전 10:00-10:20, 2층 교육부실
-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영적부모들을 기다립니다.

금요 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보혈을 지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최은총 전도사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아모스 5:21-24	다함께 기립
설 교	더위를 식히는 하나님의 사랑 ⑵ 강물	최은총 전도사
찬양과 기도		오종향 목사
축 도		
개인 기도 후 귀가		

교회를 섬기는 분들
행복한 제직회 · 2026년 하반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것, 제안하고 싶은 것,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각 팀장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년 제직 명단

제직의 임기는 1년입니다. 내년 제직은 연임과 신임으로 세워집니다.

- 권사: 김영혜, 옥진복, 정민재
- 집사: 강자은,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혜영, 노영숙, 문영식, 박태원, 배지은, 손이숙, 우문주, 원종욱, 유은희, 은원철, 이수민

함께 섬기는 봉사자

제직은 아니지만 귀한 몸과 시간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분들입니다.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 박민수 (예배 안내), 윤재연 (예배 안내)
- 이성은 (찬양팀 찬양 인도)

섬김의 팀

- 환경개선팀 (팀장 강자은 · 김영혜, 우문주) 예배당과 교회 공간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내부 데코, 화분과 식물 돌봄 등

- 구제전도팀 (팀장 원종욱 · 김영혜, 손이숙, 옥진복, 정민재) 가을 새가족 초청집회를 준비하고, 연말에는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과 선물을 전합니다.

- 새가족안내팀 (팀장 유은희 · 배지은, 이수민) 주일마다 예배당 입구에서 환영하고, 새가족이 오시면 자리와 식사를 함께하며 섬깁니다.

- 재정팀 (팀장 김재강 · 은원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기, 연간마다 보고합니다.

- 찬양팀 (팀장 김성배 · 노영숙, 문영식, 은원철, 이성은)
  찬양, 음향, 방송 송출, 미디어를 맡습니다.

- 자비사역팀 (팀장 김혜영 · 김순영, 김현지, 박태원)
  유니시드(탈북자 지원, 도시락 나눔), 시선오브·꽃피는 봄날
  (자립준비청년), 쪽방촌(주거불안가정) 등 이웃을 찾아가 섬깁니다.

- 앞으로 세워질 팀: 중보기도팀, 독서클럽팀, 다음세대교육팀,
  소셜미디어팀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팀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함께 시작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예배 안내위원

- 첫째 주: 윤재연, 이수민
- 둘째 주: 옥진복, 손이숙
- 셋째 주: 배지은, 유은희
- 넷째 주: 박민수
- 다섯째 주: 지원 요망

주일학교 섬김

- 유은희 (유치부 교사)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소그룹 조장

-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김순영, 김현지, 유은희 조장은 새로운 조가 만들어질 때를 준비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다시 건네시는 결혼 예물

금요기도회《더위를 식히는 하나님의 사랑》

결혼 예물은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예물을 다시 건네겠다고 하십니다. 예물을 다시 건넨다는 것은, 그 관계가 한 번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과 두 아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혼이 합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을 빌려 전혀 다른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호 2:19).

여기 쓰인 '장가들다(아라스)'는 재혼할 때가 아니라 처음 결혼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배신하고 떠난 백성을 마지못해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결혼하시는 것처럼 정중하게 맞으십니다. 그리고 신부값을 치르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 다섯 가지 값입니다.

죄를 못 본 척 눈감고 대충 화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정확히 계산하시되, 그 값을 신랑이신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십니다. 값이 완전히 치러진 관계는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신은 인간 사이에서는 관계를 끝낼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시 시작할 이유였습니다. 사랑이 식은 이유는 나에게 있었는데, 약속이 지켜지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누구의 진실함입니까. 고멜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결과로, 선물의 크기로 사랑과 존재를 증명하라 합니다. 증명하려고 움켜쥘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증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증명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신부값을 다 치르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혼인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신랑이 살아 계시기에 이 결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결혼식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규칙 잘 지키는 사람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야 서로를 알듯, 주님과 결혼하고도 주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혹시 나는 고멜처럼 어디론가 떠나는 중은 아닙니까. 혹시 나를 증명하려는 허우적거림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움켜쥔 손을 펴서, 주님이 건네시는 예물을 받읍시다. 돌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청혼하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이 여름의 더위 위에 소낙비처럼 시원하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오목사 드림